

에이스, 유기화학 효능 친환경 농약제재 개발

지역 중소기업이 유기화학 농약에 버금가는 방제능력을 지닌 친환경 제재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8월23일 친환경 배 특화사업단(단장 김월수 전남대 교수)에 따르면, 사업단은 최근 곡성군 고달면과 보성군 회천면에서 에이스 코리아가 개발한 해충제, 곰팡이 억제제, 작물 영양제 등 친환경 제재를 이용한 <무농약 배 과원 프로그램>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사업단은 제재들을 활용해 병충해를 막는 것은 물론 2006년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도 뛰어난 수확을 거두어 9월 농림부 관계자와 농민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제재와 무농약 재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제재는 콩기름, 국화, 때죽나무 등 순 식물성 추출물을 원료로 은나노 기술을 더한 것으로 방제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160가지 사용 후 유해성분 검사에서도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아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또 농약을 반복해서 쓸 경우 생기는 농작물의 면역력 증강 효과도 미미해 하우스 농가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 코리아는 1998년부터 제재 개발에 착수해 연구를 함께 진행한 교수의 사망 등 위기를 딛고 2005년 말 완제품을 만들었으며 장성군 동화면, 순천시 별량면, 강진군 움천면 등의 친환경 재배 농민들을 상대로 제재를 활용토록 해 우수성을 입증했다.

김월수 교수는 “친환경 제재는 원천적으로 화학농약의 방제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이 제품은 햇빛쪼임이나 물 관리 등 조건만 맞춘다면 화학농약에 버금가는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2>